

지역 소식통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농지연금 명예홍보대사위촉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지난 14일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농업인 등 10여명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농지연금 관련 팸플렛과 소정의 기념품을 나누며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농지연금은 농촌사회의 초고령화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지속 증가 및 농촌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지난 2010년도부터 농지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매월 지급해 주면서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효자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김제 관내 150여명이 가입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김병수 지사장은 "이번 명예 홍보 대사 위촉을 통해 농지연금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제=곽태기자

부안경찰서 서립지구대 치안 도모·지역봉사 앞장

부안경찰서 서립지구대는 서립 자율방범위원회 정기회의 참석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부안을 위한 민·경 협력 치안 도모와 지역봉사에 앞장서기로 했다.

지난 14일 강종삼 서립 지구대장은 부안에서 추진 중인 교통안전사고 4대 사회악 근절 예방 등 경찰의 활동 및 추진사항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 서립 자율방범위원회는 서립 자율방범대원 40여 명과 부안을 관내 야간 순찰시 경찰과 대원들이 합동 우범지역 및 청소년 탈선지역 등을 순찰하며 안전한 귀갓길을 돕고, 관내 미귀가자 발생시 자발적 수색에 동참하여 적극 방범예방 및 지역봉사를 펼치기로 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가 "당신을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15일 오전 소방출동로 확보와 긴급출동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긴급 소방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을 방지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정견일 방호 구조팀장은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 이웃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 출동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농촌 지역 환경 개선 '앞장'

정읍시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영농에 사용된 후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을 적기에 수거하여 농촌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비는 2억4,600만원이 투입된다. 영농 폐비닐을 1차 배출자인 농민이 직접 한국환경공단으로 가지고 가거나 마을별 또는 작목년별 집하장 등에 수집·배출한 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하여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수거한다.

시는 "일정 장소에 모이지 않고 경작지 인근에 소량으로 배출 할 경우에는 수거 인력 과 장비의 한계로 전량 수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폐비닐의 성공적인 수거는 영농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여 집하장 등 일정 장소까지 운반하는 농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방치된 폐비닐을 불법 소각한 경우 농촌지역의 대기오염뿐 아니라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반드시 수거하여 적정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환경공단의 등급 판정 비율이 2016년 A급 3%, B급 88%, C급 9% 과 다르게 2017년에는 A급 3%, B급 3%, C급 94%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주택수선·농어촌빈집 정비사업 등 673가구 28억9200만원 투입

김제시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향상을 위해 주택수선 및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등 673가구 28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대상자 중 본인소유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 주거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계층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나눔과 희망의 집고쳐주기사업, 도심과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내빈집정비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이다.

주택급여사업의 우선유지급여사업은 올해 380가구 17억4,82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오는 3월부터 대상가구 현지확인 후 주택개·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예산의 50%를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량

은 136세대 5억5,400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붕, 창호, 주방 등 시설보수와 도배·장판 등 간단한 개·보수를 지원하게 되며 2월경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자

부안 상서면, 개암동 벚꽃축제 추진위원회 간담회

부안군 상서면은 개암동 벚꽃축제를 봄철 대표축제로 거듭나려는 제2회 개암동 벚꽃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공운석) 간담회가 최근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운석 추진위원장과 3개 마을(회시·봉은·유정 마을) 이장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해 축제에서 잘된 점, 부족했던 점 등을 분석해 개선하고 올해 제2회 개암동 벚꽃축제 추진계획 및

세부프로그램 진행방식, 체험프로그램 등의 의견을 논의했다.

개암동 벚꽃축제는 자연경관을 잘 활용한 거리형 마을축제로 일회성이 아닌 부안군 봄철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해 제1회 개암동 벚꽃축제 개최시 약 2만 1000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약 500여만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성공적 마을축제로 평가받아 왔다.

개암동 벚꽃축제는 오는 4월 8~9일 2일 간 부안군 상서면 개암사 진입로 3km구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운석 개암동 벚꽃축제 추진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작년축제보다 더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려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행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김제시 향토음식점 1호점 현판식

김제시는 15일 금산면 소재 지평선정보리향토음식점(대표 최미애)에서 김제시 향토음식점 1호점에 대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나병문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제시지부장 겸 시의회의원장, 도 건강안전과장, 도의원 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제시 향토음식점 지정에 관한 경과보고와 인사발령, 현막(제막)식, 기념촬영, 다과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제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차별화된 레시피로 고유의 맛을 내는 음식을 발굴하여 지난 해 도로로부터 지정된 우수비빔밥과 지평선마창순대국밥을 김제시 향토음식으로 지정 받았다.

이에 향토음식을 취급하는 업

소 중에서 엄정한 9인의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 3개소를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자체 제작된 김제시 향토음식점 표지판은 풍요로운 지평선 김제와 음식에 대한 토속성을 조화롭게 살린 상징로고로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부착 내외 관광객에게 널리 홍보하고, 향토 음식점에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만 보건소장은 "고유한 방법으로 지역의 전통과 개성을 살리는 지정 향토음식을 더욱 육성·강화하여 지역의 맛을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태기자

정읍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정읍시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정읍'을 실현해가고 있다. 시는 각종 사건과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범죄와 재산 없는 안전행복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에는 국비 7억4천8백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억7천만원이 투입됐다.

이 통합관제센터는 정읍 시내에 설치된 557대의 폐쇄회로(CCTV)를 관제요원과 경찰이 하루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생활 방법과 범죄 추적, 어린이·노약자 보호, 시설안전 관리, 화재·재난·산불 감시등의 관제 업

무를 맡고 있다. 시는 사건·사고 발생 시 민트없는 용의 차량 추적·검거를 위해 앞으로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설치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안전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달 31일 육군 제35사단 제8098부대 정읍대대와 통합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관·군간 영상정보 공유와 상호 긴밀한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군 연락관 파견과 영상정보 공유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방위 작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남원에서 만나는
**지리산
둘레길**

마을과 고개를 넘어
사람과 숲을 이어주는
지리산 800리길, 남원

파란 하늘과 붉은 산과 황금 들녘이
수채화처럼 펼쳐지는 곳
지리산 둘레길엔 가을이 한창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KBS 1박 2일이
함께 했던 남원
멋과 맛이 숨쉬는
가족 여행지입니다.